

# 의향 전남의 뿌리 한눈에...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개관

### 전남도, 나주 영상테마파크 부지에 전국 최초 의병 전문박물관 3085점 유물 집대성...3월 2일까지 사전 관람·5일 정식 개관

의향(義鄕) 전남의 역사를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문을 연다.

전남도는 24일 나주시 공산면 남도의병 역사박물관에서 프레스테이를 열고 박물관 건립경과와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남도의병 역사박물관은 예산 422억원을 투입, 나주시 공산면 일원에 연면적 7321㎡, 지하 1층·지상 1층 규모로 유물 3085점을 채워 넣었다.

남도의병 역사박물관은 을묘왜변(1555)년부터 3·1운동(1919년) 전까지 위기에 빠진 국가를 위해 외적에 맞서 싸운 전남도민과 전남에서 벌어진 전투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남도의병 역사박물관은 3·1운동 100주년이던 지난 2019년, 남도의병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뜻에 따라 본격화했다.

전남도는 남도의병 역사공원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연구를 거쳐 후보지 선정이 돌입했다. 당시 전남도내 5개 지자체가 유치에 나섰는데, 나주 영상테마파크 부지가 선정됐다. 나주는 임진왜란 당시 전남에서 가장 먼저 의병이

일어난 지역이며 대한제국 시기 가장 많은 의병이 활동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후 사업은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이후 2022년 국제설계 공모에 나서 제독 건축가인 주현제 등의 출품작을 당선작으로 선정, 2024년 착공에 들어가 사업추진 7년만인 2025년 11월 준공 승인을 받았다.

전남도는 유물 확보에 나서 1500점을 구입하고 가증품 383점, 기탁품 1202점 등으로 박물관을 채워 넣었다. 주요 전시물로는 정유재란(1597년) 당시 의병장 신군안이 이순신 장군으로부터 받은 임명첩과 고정현이 임진왜란 당시 전라도 의병들의 활약상을 정리한 호남절의록, 의병장 왕의성의 검, 대한제국 시기 의병장 고광순이 사용한 '불원복'(머지 않아 국권을 회복한다) 태극기 등이다.

남도의병 역사박물관은 기존 전시관람 중심에서 벗어나 체험형 박물관을 목표로, 전시관람과 교육, 체험, 여행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남도의 의로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허브 역할도 담당할 계획으로, 미취학 아동부터 직장인



24일 열린 남도의병역사박물관 프레스테이에서 전남도 학예연구사가 임진왜란 시기 의병장 고정명 장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까지 다양한 계층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설 연휴 기간 1차 사전관람에는 1419명의 관람객이 박물관을 찾는 등 큰 관심을 끌었

다. 박물관은 24일부터 오는 3월 2일까지 2차 사전관람을 진행하며 오는 3월 5일 정식 개관한다.

박종환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개관준비단장은 "의병의 역사는 독립군, 독립운동가들에 견줘 비교적

적은 관심을 받아왔다"며 "남도의병 박물관을 통해 의병과 남도 의병 역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재평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클·사진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전남도 올해 첫 추경 13조3805억 편성...도의회 제출

전남도가 비경영안정대책비 114억원을 추가 편성해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하고 제조업과 농업의 인공지능(AI)로 전환하는 데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전남도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3조 3805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12조 723억원 보다 6782억원(5.3%) 증가한 규모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위기와 저출산 극복,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658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이자지원금(63억원),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106억원), 농업 AX 혁신기반 조성(85억원) 등이 새롭게 편성되거나 늘어났다.

특히 전남도의회 요구로 삭감됐던 비경영안정

대책비가 114억원 추가 편성되면서,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됐다. 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전남 섬 박람회 여행 지원'(5억원),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3억원), '섬 박람회 랜드마크 조성'(3억원), '안전시설물 및 도로정비'(7.3억원) 등에 22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국가폭력 희생자와 유족의 치유와 일상회복 지원하기는 '국립전남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사업' 12억원도 신규 편성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의 미래와 직결된 핵심 현안 해결에 방점을 뒀다"며 "도민이 일상에서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고, 전남이 미래로 대도약할 발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시, '가동 중단' SRF 제조시설 운영사에 293억원 손해배상 청구

### 지역 유일 폐기물처리장 파행운영 책임

광주시가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제조시설)의 잦은 가동 중단과 파행 운영에 책임을 물어 위탁 운영사를 상대로 300억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SRF 제조시설 운영을 맡고 있는 청정빛고을(주)을 상대로 시설 비정상 가동에 따른 광역위생매립장 수명 단축 책임을 물어 29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1월 기준 운영사 측이 제때 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무려 152만 3112㎡의 폐기물이 매립장으로 고스란히 쏟아졌다. 이는 현재까지 매립된 총량 461만 3176㎡의 33%에 달하는 분량으로, 당초 예상했던 매립장 사용 기한이 6년6개월이나 앞당겨졌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총 용량 948만㎡ 규모인 광역위생매립장은 광주

시와 곡성군에서 배출되는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조성됐다. 매립 용량 탓에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는 핵심 환경 기반 시설이다.

2005년 1월 첫 반입을 시작해 2025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용량의 절반에 가까운 49%를 소진한 상태다. 이에 시는 매립장 수명을 최대한 늘리고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SRF 제조시설을 건립했으며, 지난 2017년부터 청정빛고을에 운영을 맡겼다.

그러나 해당 시설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나주 열병합발전소 연료 사용 인허가 문제가 불거지면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멈춰 섰다. 이후 2022년 가까스로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끊임없는 설비 고장과 유지보수를 핑계로 당초 계획된 폐기물 처리량을 전혀 채우지 못했다.

급기야 지난해 9월과 10월에는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넘겨 관할 구청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자, 이

를 모면하기 위해 운영사가 자의적으로 공장 가동을 멈췄다. 결과적으로 SRF 제조시설에서 소화하지 못한 막대한 양의 생활 쓰레기는 전량 광역위생매립장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이렇게 추가로 쌓인 폐기물만 100만 t에 달하며, 이는 2005년 개장 이후 지금까지 매립된 총량 306만 t의 33%를 차지하는 분량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부지 조성과 공사 등에 투입된 매몰 비용을 역산해 단축된 6년6개월의 금전적 가치를 293억 원으로 산출했다.

이상배 기후환경국장장은 "한정된 수명을 가진 지역의 유일한 폐기물 처리장이 운영사의 잦은 파행으로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며, "철저한 소송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책임을 명명 백백히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전남 설 연휴 방문객,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

설 명절 연휴에 광주·전남을 찾은 방문객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24일 한국관광공사가 이동통신 위치를 기반으로 산출한 빅데이터 자료를 보면 설 연휴인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지역 외지인 방문객(일차별 순방문자 수)은 광주 177만8399명·전남 419만457명 등 596만8856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광주는 35만5680명, 전남은 83만 8091명이 찾은 셈이다. 올해는 지난해 설 연휴

(1월25~30일·6일)보다 외지인 방문객 1일 평균이 '두 자릿수' 늘어났다.

지난해 설 연휴 하루 평균 방문객은 광주 32만 2436명·전남 74만1973명으로, 1년 새 각각 광주 10.3%(3만3244명)·전남 13.0%(9만6118명) 증가했다. 설 연휴 기간 내비게이션 지역 관광지 검색 순위(음식·숙박업소 제외)를 보면 광주는 대형 판매점, 전남은 자연관광 명소가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시, 올 공직자 1000명 채용 역대 최대...전년비 3배 ↑

광주시가 민선 8기 핵심 정책의 본격 시행과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맞춰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00명(공공기관 포함)을 선발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4일 시청에서 언론 차담회를 열고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전국화와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시철도 2호선 개통 대비 등 시정 핵심 사업들이 결실을 맺으면서 행정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신규 채용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올해 채용 인원은 지방공무원 624명, 공공기관 354명, 공무원직 15명, 청원경찰 7명 등 총 1000명이다. 이는 지난해 375명과 비교해 약 3배(266%) 늘어난 수치로, 최근 3년 평균 채용 인원인 144명의 4.3배에 달하는 규모다.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행정통합" 관련, 사회복지직 107명, 간호직 52명 등 관련 인력 122명을 선발한다. 행정직군 또한 행정통합 및 군공약 이전 등

급격한 현안 처리를 위해 전년 대비 4.4배 증가한 272명을 뽑는다. 공공기관 채용 역시 15개 기관에서 총 354명을 선발하며 역대급 규모를 기록했다. 기관별로는 광주교통공사 278명으로 가장 많고, 광주도시공사 25명, 광주환경공단 13명, 광주관광공사 11명 순이다.

강 시장은 "이번 채용은 광주의 우수한 정책이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증명하는 것"이라며 "공공 일자리가 지역 고용 시장의 미중물이 되어 청년들이 광주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희망의 터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 첨단우리병원

##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은 돈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수수료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권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2차)

본 회사는 2026년02월09일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5일  
주식회사 헤니매커스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4층 415호(지명동, 세정아울렛)  
청산인 박환민

---

### 분할 합병 공고 (채권자 이의 제출공고)

주식회사 이브이(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아성에이(이하 "을"이라 한다)는 2026년 02월 23일 각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채산(영업)의 일부를 전가공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문을 "을"과 분할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며, "갑"의 분할된 부문의 권리의무는 "을"이 승계하고, 합병 제530조의 9제항에 의거하여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게재일로부터 1개월내로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25일  
"갑" 주식회사 이브이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양면 소양로 186-10 대표이사 홍희숙  
"을" 주식회사 아성에이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양면 소양로 186-10, 2층 대표이사 홍희숙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문의 (062) 227-9600      에칭구독 (062) 220-0550